

‘결제망 거부’ 티몬 오픈 5개월째 멈춰… 오아시스 ‘발동동’

리스크 우려에 카드사 승인 미뤄
플랫폼 안내 등 셀러 재기 노력
‘탈쿠팡’ 대안으로 반등기회 놓쳐

1세대 이커머스 티몬 재개장이 5개월째 멈춰 섰다. 지난해 6월 오아시스마켓 이파산 위기였던 티몬을 인수했지만, 카드사들이 결제망 제공을 거부하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인수대금과 플랫폼 재건 비용으로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오아시스마켓은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달 8일 기준 티몬은 웹사이트와 앱 접속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티몬 홈페이지에는 쇼핑 화면 대신 재오픈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만 게시돼 있다. 티몬 측은 안내문을 통해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 들께서 많은 민원이 집중 제기됐다”며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 6월 티몬을 인수하며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



오아시스마켓 강남점 전경

/오아시스마켓

다. 퇴직금 지불 및 플랫폼 시스템 재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티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도 했다. 당초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 9월 10일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 파트너사와 1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했으나, ‘티메프 사태’ 학습 효과로 정산 리스크를 우려한 주요 카드사들이 가맹 승인을 미루면서 모든 계획이 멈

춰섰다.

티몬 재개장이 미뤄지며 당초 티몬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셀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가격 상생안을 내걸며 기존 15% 안팎이던 판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3~5%로 대폭 낮추고, 구매 확정 익일 대금을 지급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티몬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시장 신

뢰를 회복하고 자금난을 겪은 피해 셀러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었지만, 미뤄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피해 판매자들과 이미 업계 최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준비를 마쳤으나 오픈이 안 돼 안타깝다”며 “준비했던 셀러들에게 다른 플랫폼 판로를 안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이 멈춘 사이 탈팡(쿠팡 이탈) 수혜를 놓치고 있다는 점도 뼈아프다.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 경쟁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월 쿠팡 앱 사용자 수는 3318만명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이용자 수가 10% 늘어나며 2달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탈팡족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며 실적 반등 기회를 잡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

계자는 “티몬이 정상적으로 재개장했다면 런칭 초기 화제성이 집중되는 만큼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 입장에서선 투자금 회수는 커녕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한 셈이다.

티몬 사태 여파는 유통업계 전반의 인수합병(M&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건전한 기업이 인수해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약속했음에도 금융권이 문턱을 높이자,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 발란 등도 신뢰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직면했다. 잠재적 원매자들이 금융권의 비협조 가능성을 우려해 인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재오픈이 언제까지 지연될 지 모르지만, 순리대로 카드사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재오픈이 성사된다면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된 현 이커머스 시장에서 셀러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어 건전한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설 명절, 고품격 와인으로 진심 전해요”

나라셀라, 다채로운 라인업 선보여
‘몬테스’, 누적 1700만 병 팔려

나라셀라가 병오년 새해 설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특집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테디셀러부터 와인 애호가를 위한 고품격 화이트 와인, 그리고 명절의 흥을 돋을 프리미엄 사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준비했다.

먼저, 국내 누적 판매 1700만 병을 돌파하며 ‘국민 와인’으로 자리매김한 칠레의 몬테스가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몬테스 ID 카버네 소비뇽’은 몬테스의 철학과 정체성(Identity)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품이다.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풍미와 부드러운 탄닌이 조화를 이루며, 갈비찜이나 불고기 등 양념이 가미된 한국 정통 명절 음식과 완벽한 마리야주를 보여준다. 호불호 없는 맛으로



나라셀라 설 선물세트

/나라셀라

격식 있는 자리나 친지 방문 선물로 제격이다.

격조 높은 화이트 와인을 찾는다면 나과 밸리의 전설 ‘마이크 그르키치’가 만든 ‘그르키치 힐스 에센스 소비뇽 블랑’을 추천한다.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 1위를 차지하며 세상

을 놀라게 한 거장의 손길이 닿은 와인이다. 이름처럼 소비뇽 블랑의 정수(Essence)를 담아냈으며, 신선한 산도와 우아한 미네랄리티가 압권이다. 명절에 즐기는 각종 전이나 생선 요리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 주는 품격 있는 선물이다.

와인 외에 좀 더 특별한 주류 선물을 고민한다면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만난 사케 ‘메이조 준마이다이긴조 마루와라이’를 추천한다. ‘마루와라이(동근 미소)’라는 이름처럼, 새해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하게 웃기를 바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았다. 정미율 50%의 준마이다이긴조로, 특유의 향긋한 과실향과 깔끔한 목 넘김이 일품이다. 고급스러운 패키지 덕분에 어르신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다. 해당 선물세트는 전국 코스트코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로수바미브’ 작년 원외처방액 1000억 돌파

유한양행, 5년간 성장률 약 13%

유한양행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가 국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원외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가 집계한 원외처방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로수바미브는 2025년 국내 처방 실적으로 총 1022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출시 후 10년 차에 접어든 로수바미브의 성장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약 13% 수준이다.

로수바미브는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처방한 복합제다.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다양한 용량을 갖춰 환자사와 의료진 모두의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

/이청하 기자

특히 로수바미브는 임상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고강도 로수바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스타틴 관련 근육 이상 반응 및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으면서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로수바미브 후속 임상을 진행해 왔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료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에도 연간 1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처방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에 적극 대비해 고령 환자의 지질 및 대사 이상 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헌터라제ICV’ 페루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 뇌실 내 투여 제형 구축

GC녹십자는 페루 의약품관리국에 헌터중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헌터라제ICV는 환자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약물 이 뇌 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도달해 인지 능력 상실, 뇌 병변,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까지 개선할 수 있다.

헌터중후군 중증 환자의 약 70%에서

는 중추신경 손상이 발생하는데, 기존 정맥 주사의 경우, 약물이 뇌혈관장벽(BB)을 투과하지 못해 치료에 한계가 있다.

GC녹십자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을 독자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헌터라제ICV는 2021년 일본, 2024년 러시아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헌터라제ICV는 중추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해파란 황산을 유의

미하게 감소시켰고 환자의 지적·신체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발달 연령이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5년간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해파란 황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고 인지 기능 퇴행이 지연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GC녹십자는 향후 동남아, 중동·중남미 지역 등으로 허가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C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 ICV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 치료제로 희귀질환 분야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공급을 지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시즌 한정 메뉴 인기에 연장 판매

스타벅스 코리아가 1인 가구 증가와 세분화되는 디저트 수요에 맞춰 매 시즌 새로운 미니 롤케이크를 선보이며 관련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념일은 물론 일상적인 디저트로 롤케이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며 부담 없는 크기의 미니 롤케이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 겨울 선보인 ‘딸기 프레지에 케이크’는 1~2인이 즐기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와 딸기가 장식된 화려한 비주얼, 선물용으로도 좋은 전용 패키지 포장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 판매 40만 개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당초 크리스마스 시즌 한



스타벅스 미니 롤케이크는 케이크 판매 순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정으로 선보였던 해당 케이크의 판매 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딸기 가나슈 프레지에’도 빠진 사이즈로 기념일은 물론 데일리 디저트 케이크로도 주목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신원선 기자